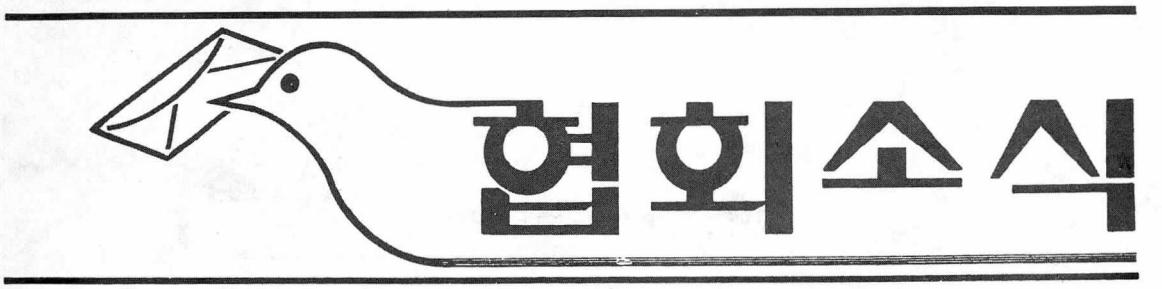


본회, 돼지고기 안정가격 상향 조정 건의

—상한가격 14만원→17만원, 하한가격 9만5천원→12만원으로

본회는 정부가 금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돼지고기 가격안정대제도와 관련, 정부가 설정한 상한가격 14만원, 하한가격 9만5천원을 17만원과 12만원으로 이를 각각 상향조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문을 통해, 「작년도에 장기간의 생산비 이하의 돈가유지로 40%의 양돈농가가 도산한 상황에서 돼지가격 안정대시책은 양돈업을 안정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상한가격을 14만원, 하한가격을 9만5천원으로 설정한 것은 정부의 돼지 증식 시책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가격이 17~18만원이 유지돼도 돼지 증식이 잘 안되는 실정에서 상한가격을 14만원으로 정한 것은 사육의욕을 상실시키고 불안감을 줘 결국 생산기반 조성에 역기능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적정 사육두수가 도달될 때까지 상한가격을 17만원으로, 하한가격을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10월 25일 보낸 회신을 통해, 「돼지가격 안정대의 상하한가격은 축협중앙회에서 조사한 90년 1/4분기 비육돈 생산비 10만5천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상한가격 14만원은 생산비 10만5천원보다 33% 높은 수준이며, 하한가격은 경영비수준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결정했다」고 밝혀 금년에는 상하한가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돈산업현안비상대책위 개최

—가격안정대, UR협상 문제등 논의

본회는 지난 10월 24일 회장단과 양돈산업현안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를 개최하고 △돼지가격안정대 설정에 대한 대책 △UR협상에 대한 돼지고기 NTC품목 지정에 따른 대응책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축산법 개정에 관한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명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설정한 돼지가격 상하한가 14만원과 9만5천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경영규모별로 생산원가를 조사하여 상하한가격이 17만원과 12만원이 되도록 축협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돼지고기가 UR협상의 NTC 품목에 들어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UR협상에 대한 문제는 축산관련 단체와 연대해 저지해 나가되, 세부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 집행」토록 했다.

비대위는 이밖에도 배합사료 등의 부가세가 농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정부, 국회 로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최근의 축산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허가상한선

폐지와 재벌기업의 양돈업 신규참여 허용」은 절대 반대키로 했다.

본회, 고양지부등 4개지부에 수재의연금 전달

본회는 지난 9월 중순의 집중폭우로 수재를 당한 경기 광주지부와 여주지부, 고양지부, 김포지부 소속 회원농가에서 본회 각 지부가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다.

본회 이명복부회장(경기도협의회장)은 지난 9월 19일과 10월 8일 이들 지부를 방문,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고 수재를 당한 회원들을 위로했다.

이명복부회장은 이들에게 별도 금일봉을 전달했다.

▲수재의연금 납부 현황

성 명	소 속	금 액
전 동 용	중앙회장	1,000,000
최 상 백	중앙회부회장	100,000
김 해 수	강원도협의회장	50,000
신 태 식	경남도협의회장	500,000
김 상 호	제주지부장	200,000
유 창 조	홍성지부장	100,000
은 중 표	정주정읍지부장	100,000
조 영 송	화순지부장	100,000
최 만 수	춘천춘성지부장	100,000
장 재 민	상주지부장	50,000
여 정 태	청도지부장	50,000
신 중 한	달성지부장	100,000
조 옥 봉	대구지부장	300,000
최 희 태	광주지부장	850,000
임 형 석	보성지부장	100,000
중앙회직원	일동	250,000
	합계	3,950,000

청도지부 창립3주년 기념행사 성료

청도지부(여정태)는 지난 9월 5일 지부 사무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회원, 회원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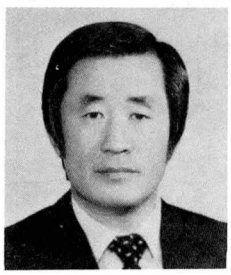
여정태지부장은 지부 발전에 공이 많은 김규명, 이제성 회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전회원이 일치단결, 국제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지부는 기념식후 단합대회도 가졌다.

안양시흥지부 창립2주년 기념식 개최

안양시흥지부(지부장 : 김찬채)는 지난 9월 8일 오솔길광장에서 회원과 회원가족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창립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양시흥지부는 기념식이 끝난후 가족단위로 신문밟기, 풍선터트리기, 어린이달리기 게임을 갖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본회 장익상 상무 영입



장익상 상무

본회는 지난 9월 21일 장익상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신임 장익상상무(54세)는 성균관대 문과를 졸업한후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주)현대전업과 (주)천명의 대표이사도 역임한바 있다.

장익상 신임상무는「양돈협회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본회 신규직원 채용 및 인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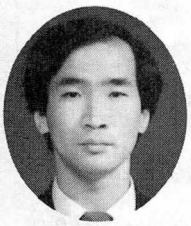
본회는 9~10월중 아래와 같이 신규직원 5명을 채용하는 한편, 지도부의 소경애양을 제1검정소로, 총무부의 변영정양을 제2검정소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신규직원 명단〉

▲총무부 : 최미균양(22세, 장호원상고 졸)

▲지도부 : 남기동씨(29세, 한양대 행정대학원 졸)
김용란양(24세, 충남대 지질학과 졸)

▲홍보부 : 이춘호씨(29세, 전 육일축산 근무)
배용식씨(26세, 건국대 축산학과 졸)


이춘호씨

남기동씨

배용식씨

김용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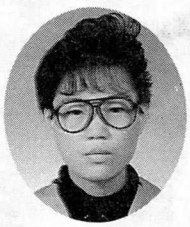
최미균양

■ 협 회 단 신 ■

옥천지부, 거창지부 신규직원 채용

옥천지부(지부장 : 정종배)는 최근 금기숙양(20세, 대진여상 졸)을 신규 채용했다.

또한 거창지부(지부장 : 김병수)는 8월 31일 구숙녀양(23세, 거창대성여상고졸)을 신규 채용했다.


금기숙양

구숙녀양

홍성지부 사무실 이전

홍성지부(지부장 : 유창조)는 9월 6일 사무실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다.

▲이전장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7-2

▲전 화 : (0451)32-2922

음성지부 사무실 이전

음성지부(지부장 : 이상훈)는 9월 22일 사무실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다.

▲이전장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8-12

▲전 화 : (0336)641-3456

상주지부 사무실 이전

상주지부(지부장 : 김기탁)은 10월 6일 사무실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다.

▲이전장소 : 경북 상주시 남성동 101번지

▲전 화 : (0582)33-1770

본회, 91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

본회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91년도 협회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91협회 업무용 수첩에는 축산관련기관·단체의 주소 전화번호, 본회 전국 지부의 주소 전화번호, 양돈관련 통계자료, 양돈경영기술지표, 유해물질 허용기준, 전국지도, 우편번호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구입신청문의 : 본회 홍보부 (553-3942~6)